

# 데이터 갈취 ‘스마트폰 학교폭력’ 심각

카톡 왕파·와이파이 셔틀 등  
3·4월 신학기 피해 신고 급증  
폭행 줄고 모욕·명예훼손 늘어  
광주·전남 경찰 2개월 특별 단속

■ 지난해 광주·전남 117신고 학교폭력 유형

·단위:건

성폭력 40 (1.1%)  
강요 41 (1.1%)  
기타 1369 (37.9%)  
폭행·협박 1137 (31.5%)  
모욕·명예훼손 954 (26.4%)  
공갈·갈취 71(2%)

1일 광주·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7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분석한 결과, 신학기인 3~5월 학교폭력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선 3년간 6054건의 학교폭력이 접수됐다. 2014년 2130건에서 2015년 177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2150건으로 21.2%(376건) 급증했다. 전남은 같은 기간 2238건에서 1728건, 1462건으로 각각 줄었다.

이들 월별로 보면, 광주는 1월 284건, 2월 290건이던 신고 건수가 신학기인 3월에 576건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4월에는 694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5월 613건, 6월 607건으로 점차 줄었다. 전남도 2월 258건에서 3월 479건, 4월 722건으로 4월에 절정을 이었다. 이는 학년초 학급 편성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서열 다툼 등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폭력 유형은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발생한 3612건 가운데 폭행·협박이 1137건(3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욕·명예훼손 954건(26.4%), 공갈·갈취 71건(2%), 강요 41건(1.1%), 성폭력 40건(1.1%)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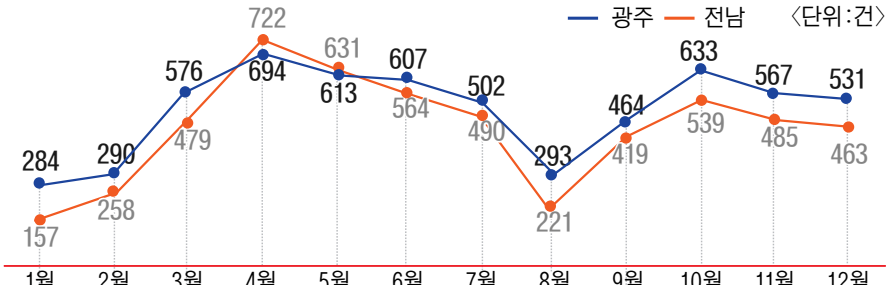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교실에서 채팅방으로, 몸에 대한 괴롭힘에서 마음에 대한 괴롭힘으로 모양새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단체 카톡방을 나가도 계속 초대해 욕설하고 괴롭히는 ‘카톡 감옥방’, 채팅방에서 한사람을 상대로 단체가 욕설·비방하는 ‘카톡 왕파’(떼가), 항상 핫스팟을 켜놓도록 강요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또 포켓몬고 열풍이 불면서 대신 포켓몬을 잡아오게 강요하는 ‘포켓몬고 셔틀’의 발생을 우려하며 이를 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친구를 상대로 한 주먹질이나 형벌상 폭행죄(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듯, 카톡방 욕설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모욕죄(1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카톡방에서 “XX가 우리반 도둑X”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특정학생을 비방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며 ‘와이파이 셔틀’, ‘포켓몬 셔틀’ 역시 형법상 강요죄(5년이하 징역)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경찰은 신학기를 맞아 3~4월 두 달을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맞춤형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모욕, 강요 행위도 심각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범죄예방교실 운영, 등굣길 캠페인 등을 할 예정이다. 또 중·고교 학생을 상대로 한 ‘런치타임 미팅’ 등 1:1 상담, 기숙사·운동부 학교폭력 실태 파악 등도 추진한다. /박정욱기자 jwpark@

■ 최근 3년간 광주·전남 117 신고 접수 월별 현황(2014~2016년)



가까워진 ‘봄’ 지난해 28일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육묘장에서 출하를 앞둔 비올라와 팬지에 물을 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봄꽃 16종 36만본을 오는 15일부터 도심 가로화단에 심을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

## 광주 벚꽃 5일 빨리 핀다…내달 초 절정

봄의 절정을 알리는 벚꽃을 올해는 2~5일 가량 빨리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민간기상업체 케이웨더에 따르면 올 봄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부지방의 벚꽃이 평년보다 2~5일 빠르게 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벚꽃은 오는 21일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개화하고, 남부지방에선 오는 26~31일 사이 피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에선 오는 29일 꽃봉오리를 터트리

고, 전주는 31일 개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주는 4월6일~7일께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벚꽃은 개화 후 만개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개화 시기는 2~3월 기온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광주의 경우 2월 강수량이 평년(43.4mm)보다 1.5mm 적었지만 기온이 평년(2.3도)보다 0.4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재기자 ej621@

### 오늘의 날씨

해출 07:01  
해진 18:29  
일출 09:17  
일몰 22:24

#### 반박 추위

비가 그친 후 기온이 떨어져 춥겠다.

#### ◇지역별 날씨(℃)

|    |     |     |     |
|----|-----|-----|-----|
| 광주 | 3/7 | 보성  | 3/7 |
| 목포 | 3/6 | 순천  | 4/9 |
| 여수 | 4/9 | 영광  | 1/5 |
| 나주 | 2/7 | 진도  | 4/5 |
| 완도 | 4/7 | 전주  | 2/7 |
| 구례 | 3/7 | 군산  | 0/5 |
| 강진 | 3/7 | 남원  | 2/7 |
| 해남 | 2/6 | 축산도 | 3/5 |
| 장성 | 2/6 |     |     |

#### ◇바다 날씨

|    | 풍향     | 파고(m) | 풍향   | 파고(m)   |
|----|--------|-------|------|---------|
| 서해 | 앞바다    | 북서~북  | 북서~북 | 2.0~4.0 |
| 남부 | 면바다    | 북서~북  | 북서~북 | 2.0~4.0 |
| 남해 | 앞바다    | 서~북서  | 북서~북 | 2.0~4.0 |
| 서부 | 면바다(동) | 서~북서  | 북서~북 | 2.0~4.0 |
|    | 면바다(서) | 서~북서  | 북서~북 | 2.0~4.0 |

#### ◇물때

|    | 간조             | 만조             |
|----|----------------|----------------|
| 목포 | 09:49<br>22:11 | 04:41<br>17:00 |
| 여수 | 05:17<br>17:42 | 11:39<br>--:-- |

#### ◇주간 날씨

| 3(금) | 4(토)  | 5(일) | 6(월) | 7(화) | 8(수) | 9(목) |
|------|-------|------|------|------|------|------|
|      |       |      |      |      |      |      |
| -3/9 | -1/13 | 2/13 | 1/9  | 0/8  | 0/9  | 0/10 |

#### ◇생활지수

|  |    |
|--|----|
|  | 보통 |
|  | 보통 |
|  | 관심 |

## 조선대 이사회 공백 장기화 조짐

후임 선출 논의 진척 없어…“先 개방이사 선임” 제안도

조선대 이사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학 최고결기구가 대학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기는 커녕, 학교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무능한’ 이사회 뿐 아니라 대학 총동창회와 대학본부 등의 소극적 자세에 대한 비판도 터져나오고 있다.

1일 조선대에 따르면 법인 이사회는 지난해 25일 이사회 임원 임기가 종료됐지만 여태껏 후속 임원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사회는 애초 개방이사 선임과 관련,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5명을 추천했지만 교수·직원·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의 반대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대자협은 당시 ‘중립적 추천위원회로

불 수 없고 구경영진측 이사에 편중된 추천’이라는 반대 입장과 함께 ‘개방이사 추천권’을 위임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이사회가 대자협 요구를 받아들여야면 이사회 이사 7명(정원 9명, 현 이사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정관을 바꾸거나 과반수(5명) 찬성으로 재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구 경영진 측 이사(3명)를 감안할 경우 쉽지 않다는 게 학내 분위기다. 지난해 열린 이사회에서도 정관 개정 논의가 나왔지만 의견 차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11명)를 적임자들로 구성, 3명의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대학 발전을 위한 차기 이사회 구성의 첫 단추를 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북구 올 일자리 창출 예산 9억원 확보

광주시 북구는 ‘2017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 사업에 7개가 선정돼 국비 9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2011년부터 6년 연속 이 사업에 선정돼 총 35억여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

체가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면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교육훈련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향토지원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정년창업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5개 분야 8개 사업을 제안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 아모리온**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
- 아모리온 롱바디**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
- 아실리바디슈트**  
블랙은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평회 1등
- 비비드아모르**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